

# 양현종, 30일까지 MLB 진출 추진...KIA “기다린다”

MLB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여

조계현 “큰무대 서고 싶은 마음 이해”

자유계약선수(FA) 양현종(33)이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계속 추진한다. 원 소속구단인 KIA 타이거즈는 3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다. 조계현 KIA 단장은 20일 “양현종의 에이전트가 30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며 “30일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선수 출신이라 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간다. 오죽 가고 싶으면 이런 요청을 할까 싶었다”며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염치없기는 하지만

양현종이 본인의 꿈이라며 간곡히 요청해 달라고 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양현종은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트 시즌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지만, MLB 구단들의 응징이 터무니 없이 낮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6시즌 뒤에는 첫 FA 자격으로 MLB 진출을 노렸으나 만족할만한 제안을 받지 못해 KIA에 남았다. 2020시즌을 마친 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양현종은 재차 MLB를 노크했다. 2021시즌 준비를 고려해 양현종 측은 자체적으로 20일까지 거취를 정하기로 했고, KIA도 기다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MLB 구단들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탓에 MLB FA 시장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 1월 중순이 넘어서야 굵직한 FA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MLB 구단이 양현종에 관심을 드러냈으나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MLB FA 시장이 워낙 느리게 흘러가는 가운데 스플릿 계약, 마이너 계약 제안은 있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며 “금액이나 계약 기간에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마이너 계약이라도 40인 로스터를 보장해주는 제안이라면 꼭 가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MLB 구단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KIA와 양현종 측은 지난 14일과 19일 만남을 가졌다. 특히 19일 두 번째 만남에서는 무척 긴 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다. KIA 측은 지난 19일 “양현종 측과 만나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고, 교감

을 나눴다. 최종 합의 전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현종 측에서 20일까지 미국 상황을 지켜보라고 해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양현종 측은 30일까지 미국의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MLB 진출에 대한 양현종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국내 구단들의 스프링캠프는 2월 1일 막을 올린다. 양현종이 KIA에 잔류할 경우 31일 전에 결론을 내야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할 수 있다. 조 단장은 “양현종의 에이전트와 30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30일까지 기다려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KIA와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미희기자



## 안병훈 “올해 PGA투어 첫 우승 위해 뛰겠다”



안병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위해 시즌을 시작한다. 안병훈은 오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라킨타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20년 PGA 투어 시즌을 시작한다. 올해 첫 대회에 나서는 안병훈은 임성재(23)와 함께 신예 김주형(19), 강성훈(34), 김시우(26), 이경훈(30), 노승열(30)과 자웅을 겨룬다. 안병훈은 “오프 시즌에는 6주정도 휴식을 가졌고 푹 쉴 수 있었다. 새로운 코치인 선 폴리와 함께 훈련하며 많은 부분을 연습했다. 오프 시즌이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연습할 수 있었다. 이제 준비된 것 같다. 다음 몇 주간 대회를 치를 생각을 하니 신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코치인 선과 보낸 훈련 기간은 만족스러웠다. 오프 시즌 동안 정말 많이 훈련했다. 스윙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대회 코스에 대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의 경기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작년에는 프로암 포맷이었다면 올해는 일반 대회들과 동일

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코스 셋업도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린은 작년보다 딱딱한 것 같다. 롱게임을 점할 수 있는 좋은 코스 세팅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병훈은 2020시즌을 돌아보며 올해 각오를 다졌다. 그는 “2020년은 힘든 한 해였다. 2019년에는 항상 와이프와 함께 다니며 거의 모든 경기에 와이프가 함께 왔다. 하지만 작년에는 혼자 다니는 대회가 많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변화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했다”며 “2020년은 나쁘지 않은 한 해였지만 내 목표 중 하나인 투어 챔피언십에 참가하지 못해서 실망스러웠다. 올해는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에 대해서 “당연히 내 목표는 투어 챔피언십 참가와 첫 PGA 투어 우승을 하는 것이다. 매 주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첫 우승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 키움, 홍원기 신임 감독 선임...“목표는 한국시리즈 우승”

고형욱 스카우트 상무, 2년 만에 단장 복귀

키움 히어로즈가 홍원기(48) 수석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긴다. 키움은 21일 “홍원기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계약기간 2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등 총액 6억원에 감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홍 신임 감독은 1996년 한화 이글스에서 프로에 데뷔해 2007년까지 두산 베어스와 현대 유니콘스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현역 은퇴 후 줄곧 히어로즈와 함께 했다. 2008년 히어로즈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한 뒤 2009년부터 1군 수비코치를 맡아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는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키움은 “홍 신임 감독이 12년 동안 구단의 코치로 활동하며 선수 육성,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선수단 내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어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신임 감독은 구단을 통해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단과 팬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스프링캠프 기간 잘 준비해 올 시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칭스태프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선수들과 코치들 그리고 시스템을 갖춘 팀이라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 계속 고민하겠지만 구단과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코칭스태프 구성을 맞춰 스프링캠프를 대비하겠다. 새로 선임된 코치들과도 미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에게는 책임감을 당부했다. 홍 신임 감독은 “그라운드에서만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감독 임기 동안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주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팬들에게는 열정적인 야구를 약속했다.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에서 가장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팀을 잘 관리할 것이다. 또 포기하지 않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야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목표는 ‘정상’이다. 키움은 매년 상위권에 오르면서도 아직 우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홍 신임 감독은 “목표는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팬들께서 야구장을 찾지 못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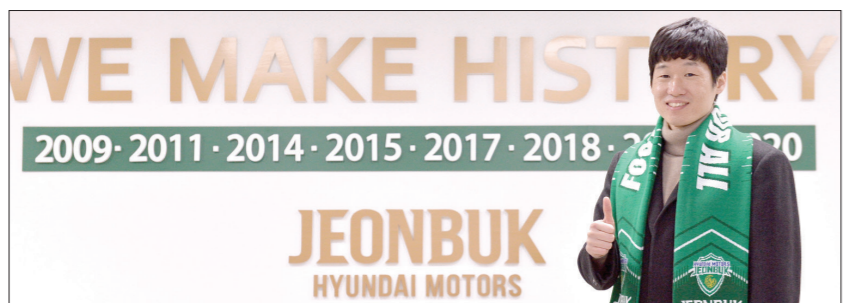


홍원기 키움 히어로즈 감독. (사진=키움 제공)

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많이 아쉬웠다. 잠시나마 야구장에 팬분들이 오셨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잊지 못했다. 올해는 시즌 마지막까지 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라운드에서 열정적인 야구 선보일 것이고, 시즌 마지막 경기 좋은 결과를 만들어 팬분들과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싶다”고 희망했다. 한편, 키움은 감독 선임과 함께 단장도 교체했다. 김치현 단장이 물러나고 고형욱 스카우트 상무가 단장직을 맡는다. 고 단장은 2017~2018년에도 넥센(현 키움)의 단장을 지낸 바 있다. 2년 만에 다시 단장으로 선임됐다. 김민정기자

## 박지성 ‘어드바이저’ 품은 전복...‘아시아 넘어 세계로’

비상근직으로 전복 구단의 ‘조언자’ 역할할 듯



프로축구 K리그1 4연패에 빛나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40)과 손을 잡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딘다. 앞서 지난 19일 전북 ‘클럽 어드바이저(이하 위원)’로 위촉된 박지성은 21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리그1 행정가로서 첫 행보에 나선다. 박 위원은 전북에서 프로와 유소년 선수 선발, 육성 및 스카우트, 훈련 시스템 제시 등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맡는다. 비상근직이지만, 영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어드바이저로 활동할 계획이며, 선수 이적과 영입 등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도 겸한다. 사실상 구단 전

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J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박 위원은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뒤 PSV아인트호벤(네덜란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등에서 10여 년간 유럽 무대를 누비며 선진 구단 운영 시스템을 경험했다. 2014년 현역 은퇴 후에는 2016~2017년 영국 레스터의 드문포드 대학교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마스터코스 과정을 밟았고, 2017년 11월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축구 총괄하는 유소년본부장으로 첫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거주로 업무 집중이 힘들어, 협회와의 동행은 1년 만에 끝났다. 한동안 행정가로서 거리를 두던 박

지성을 설득한 건 K리그 ‘최고의 명문’ 전북이었다. 김상식 신임 감독이 박 위원을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접촉을 시도했고, 오랜 설득 끝에 함께하기로 했다. 김 감독과 박지성은 과거 축구대표팀에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뿐만 아니라 백승권 단장과 허병길 대표이사를 넘어 정선진 구단주까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팬들 사이에서 ‘갯의선’으로 불리는 정 회장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전북이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고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전북은 축구대표팀 주장으로 세 번의 월드컵(2002·2006·2010년)에 출전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EPL) 맨유에서 전성기를 보낸 박지성을 품어 축구 구단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어드바이저 역할을 넘어 박지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가 경험한 유럽 선진 시스템을 구단에 완벽히 녹이겠다는 의지다. 전북이 박지성의 취미 기자회견 장소를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경기 고양의 현대모터스튜디오로 정한 것 역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가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서선욱기자

## KBO “전지훈련 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 검사 의무”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모든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19일 오후 TF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스프링캠프 진행을 위한 ‘스프링캠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응 매뉴얼은 선수 및 리그 관계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스프링캠프를 마치는 데 중점을 뒀다. KBO와 10개 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스프링캠프 진행을 위해 캠프 참가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감독,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을 비롯해 트레이너, 훈련보조, 통역, 매니저, 식당 종사자 등 캠프 현장에서 상주하며 선수단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관계자도 해당된다. 각 구단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명단을 오는 25일까지 KBO에 제출하고 진단검사를 시작한 뒤 30일까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월25일 이후 검사한 음성 확인서만 인정되며 부정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추가로 합류하는 선수도 진단 검사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캠프 합류가 가능하다. 또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와 모든 선수단 가족들도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단, 외국인 선수는 방역당국이 정한 지침에 따라 국내 입국 직후, 자가격리 해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KBO는 선수단이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 캠프 시작 전까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각 구단

에 요청했다. 캠프가 시작되면 구단은 선수단 숙소와 훈련 시설에 비접촉 체온계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시 반드시 체온 검사 및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수단 주요 동선은 외부인과 접촉이 차단된다. 연습경기가 실시되면 홈팀과 원정 선수의 동선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접촉은 금지된다. 훈련 또는 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캠프 기간 선수단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만남 인원 제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구단 인원과의 공식 업무 및 회의를 제외한 일체 사적인 대면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일일 자가 점검 또한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매일 실시하고 유증상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구단을 통해 KBO에 보고해야 한다. 김미희기자